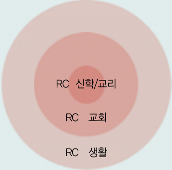
종교개혁의 정신과 한국교회의 현황



보통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를 "오직"(*sola*)이라는 단어와 연관시키는데, 내용상 원리인 "오직 은혜"(*Sola gratia*)와 "오직 믿음"(*Sola fide*), 그리고 형식상 원리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 대표적이다. 어떤 이는 그 이외에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와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까지 두 가지를 더 포함시켜 "다섯 가지 오직"(five solas)을 말하기도 한다.

종교개혁: 개혁자들로부터 우리까지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묘사하든 다섯 가지로 확대하든 그들의 주된 관심은 당시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이하 RC) 교회의 신앙 전통을 개혁하는 데 쏠려 있었다. 여기에서 "신앙 전통"이라 함은 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RC와 연관한 신학/교리, 교회, 생활을 총칭한다. 이 세 가지는 상호 깊이 연접되어 있어서 실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개념상의 구별은 가능하다. 개혁자들의 개혁은 이 세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현할 수 있을까? 최소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첫째,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혹은 다섯 가지) "오직"을 표준적 지침으로 삼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적 면모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오직"의 원리에서 벗어난 신앙 양태나 문제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경향을 "신학/교리," "교회," "생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의 사안/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도 있다.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접근에 입각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개혁의 사항이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개혁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처럼 RC로부터의 개혁을 당면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이전 종교들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사회 · 문화적 시류(時流)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혼합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각 영역마다 질문의 형식으로 열거함으로써 개혁의 기치가 필요한 사안들 — 비록 포괄적이거나 균형 잡히게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 을 파악하도록 하자. (때로 이 사안들은 한 영역 이상에 걸칠 수도 있고, 영역에의 배속이 다소 모호할 수도 있다.)

(1) 신학/교리의 영역

(i)신학의 내용과 강조점이 목회 철학과 목회 사역 및 교우들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ii)교리가 단순히 지식 함양뿐 아니라 경건에의 자극과 삶에의 결실에 이르도록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가? (아니 더욱 근본적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나 하고 있는가?)

(iii)영성의 확립에 있어 지성이 무시되거나 간과되곤 하는 무교적(巫敎的) 풍토를 — 그리하여 크리스천 마인드(Christian mind)의 함양과 계발이 내팽개쳐져 있는 현실을 — 어떻게 다룰 것인가?

(2) 교회의 영역

(i)적잖은 수의 교회들이 올바른 말씀 선포[복음 · 구원의 은택]의 책임을 점점 약화시키는 것 같은 추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i)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교회 생활에서 맨 뒷자리로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

(iii)권징 또한 실효성을 잃은 채 구호와 언급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은가? (권징의 첫 단계가 "수찬 금지"인데 성찬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신앙 풍토에서 이런 조치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iv)교회 직분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기보다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 때문에 입신 양명, 감투, 승진 등의 그릇된 세상 정신과 짝하고 있지나 않은가?

(v)한국 교회의 호칭 문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됨과 지체 의식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겠는가?

(vi)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교회 이탈 현상["가나안" 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생활의 영역

(i)어떻게 하면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화적 자태와 윤리적 수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

(ii)아직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lordship) 하에 통합/복속되지 않은 삶의 양상/부분들은 무엇인가?

(iii)오늘날과 같은 자아주의 · 물질주의 · 쾌락주의[성 · 소비 · 음식 · 건강 등]의 풍토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좇을 수 있을 것인가?

(iv)우리는 현실의 즐거움과 보람에만 눈이 멀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구와 열망을 상실한 채 살고 있을 것인가? (오늘날 천성을 향하는 나그네/순례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송인규 (前)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다. IV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IVP),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